

장자도 발전소 부지 수의계약 매매 협의

군산시-한전, 공공용지 사용조건

군산시와 한국전력공사 장자도 발전소 부지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매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장자도 발전소 부지(옥도면 장자도리 12-1번지, 2,428㎡)는 지난 1993년 군산시가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 후 2003년에 한전에서 관리하도록 양도했으며 한전에서는 2011년까지 발전소를 운영하다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으로 발전소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 올해 발전소 용도폐기 및 매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최근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후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및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 한

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요청했다. 한전은 당초 관련 규정 상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여건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군산시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및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교통 혼잡 개선 등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해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군산시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매매하기로 결정된 데에는 지역주민과 군산시는 물론 군산시의회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모두 합심하여 노력했기에 가능했으며, 군산시는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해 시의



장자도 발전소 부지 전경.

회의 등의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 완료하였고, 소요예산의 일부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으로 올해 안으로 매매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당초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

정에서 주차장 외의 용도를 검토해 적절한 공공용도로 이용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지역주민 및 시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자도 및 인근 도서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 공공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군산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19일 '2019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2019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 규모는 ▲일반형 전일제 48명 ▲시간제 18명 ▲복지형 일자리 94명 ▲특화형 일자리 6명 등 총 166명으로 20억 5,800여 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일자리 사업의 참여 인원인 133명에서 33명이 증

가했다. 일반형 일자리는 관공서,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서 행정도우미로 일하게 되며, 전일제는 주 5일 40시간, 시간제는 주5일 20시간 근무하고, 복지형 일자리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차계도 및 환경 도우미로 주14시간 월 56시간 근무한다.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대한안

사협의회 전북지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된다.

2019년 일자리 사업 참여 평가 기준에 추가된 여성가장과 기초생활 수급자, 특수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가정방문 등 주요변경 사항에 대한 반영 및 평가 걱정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해 전일제 일자리에 48명, 시간제 일자리 12명, 복지형일자리 94명을 선발 확정했으며, 신청이 미달된 시간제 일자리 참여자 6명은 재공고하여 선발하기로 했다. 선발된 참여자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1월 중 장애인일자리 사업 규정 안내와 친절교육, 안전사고 대처와 예방법 등 기본 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주홍 복지지원과장은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건설교통시책 평가 우수기관 선정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8일 '도시·군 건설교통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2018년 건설교통시책 평가 결과 3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어갔으며 건설업 활성화분야 및 주택·건축시책분야에서 최우수기관, 대중교통 정책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건설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총 5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지역업체 수주율을 높이고 건설현장 지역자재 적극 사용 및 하도급 시 관내·도내업체 권장,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

친 결과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주택·건축분야에서는 총 8개 분야 22개 항목 38개 지표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공동주택건설 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냈으며, 경관정책 및 건축행정 진흥화, 노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저소득 계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농어촌 주택개량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복지 안정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커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대중교통 정책 분야에서는 저상버스 운영, 시내버스 승강장 비탈막이 설치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박인수 건설교통국장은 "군산경제 위기 속에서 내년에도 시민을 위한 분야별 건설교통행정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시민이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8일 '도시·군 건설교통공무원 워크숍'에서 건설교통시책 평가 결과 3개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익산시, 도로유지관리 '최우수' 영예

익산시가 전라북도가 주관한 도로유지관리 평가에서 도로정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쾌적하고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주요도로 및 인도 74km에 대해 재포장 등 정비를 완료하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약 450km에 대한 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도로 이용 편의

를 도모했다.

또한 포트홀, 소파 보수, 배수로 정비, 도로표지 정비 등 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했으며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금지 펜스 등 안전시설물 설치와 교량 내진보강, 도로구조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특색 있는 인도 정비는 지방도 확장공사 관

계자들이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인도 정비의 모범사례가 되기도 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한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겨울철 제설 등 설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익산시 여성보육과, 각종 평가 수상

익산시 여성보육과(과장 이명희)가 올해 각종 평가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업무추진 능력을 인정받았다.

19일 여성보육과에 따르면 중앙부처 및 전라북도 평가에서 총 3개 부문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고,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은 보육사업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저출산 분야의 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 시민 인식개선 참여 등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의 유공을 인정받아 '전라북도 저출산 극복 시책 우수기관' 표창을 오는 31일 전

라북도 종무실에서 수상한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간제보육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명희 과장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시에 맞는 특화된 보육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집의 질 향상과 안전관리에 힘쓰는 등 보육정책 수립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명희 여성보육과장은 "각종 평가에서 수상한 것은 직원들의 노력과 시민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내년에는 올해의 성과를 발판 삼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예술동호회네트워크, 송년어울림 한마당

익산시가 오는 21일 오후 6시 익산시 청소년수련관 3층 다목적홀에서 '송년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연다고 밝혔다.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이명준)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018년 익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의 활약을 돌아보고 기념하며, 다가오는 2019년 희망찬 내일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이명준 이사장은 "2012년부터 설립된 우리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는 익산 시민들이 생활문화를 즐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동호회들이 모인 만큼 다채로운 공연과 기획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고 있다"며 "이 모든 성과의 근본은 3천여 동호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를 통해 시민이 문화소비자로서 문화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활성화된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활동경험을 통해 소통의 힘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원광대 한·중 4개 기관, 산학교류회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 중국 서주시 천산구, 서주의과대학 등 한·중 4개 기관이 산학협력 및 공동사업 MOU를 체결했다.

최근 원광대 및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교류회는 김도중 총장과 송문규 LINC+사업단장, 박광진 센터장을 비롯해 중국 서주시 천산구 인민정부 리안 부구청장, 서주의과대학 인사오상, 이수진 교수, 원광대 가족회사인 의약품 바이오기업 (주)아이큐어 등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류회는 중국 서주시와 지속해서 이어온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로 국제 신의약 개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시범센터 설립의 공동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양국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천산구 정부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협조를 비롯해 과학 분야 글로벌 인재육성 추진을 위한 다자간 MOU가 체결됐다.

김도중 총장은 "지속적인 산학교류를 통해 양국 산업체 내수시장 진입과 더불어 각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으며, 4개 기관 관계자들은 기술세미나를 통해 MOU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 교류를 갖는 등 의미를 더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